

PP스펀본드 덤핑 “몸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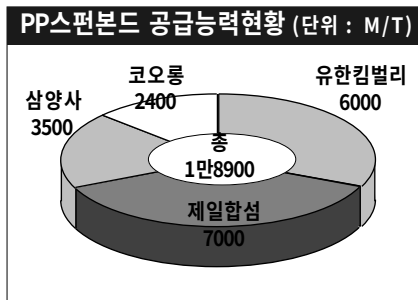
수요증가 둔화 불구 삼양 참여론 100% 공급과잉

주요 화섬기업의 시장참여로 과열양상을 빚고있는 PP스펀본드 시장이 94년초 예고된 가격덤핑이 현실화되면서 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94년 상반기 PP스펀본드 시장은 삼양사의 3500톤규모 신규진출과 제일합섬의 4700톤 증설이 겹치면서 일반용기준, 대리점 적정가격 Kg당 3200 3300원을 훨씬 밑도는 2700원선에 거래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일부기업을 중심으로 2500원이하의 덤핑판매가 계속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상황은 92년 Kg당 3500원, 93년 3000원에 크게 못미치는 수준으로 94년초 삼양사의 신규진출로 예상됐던 가격덤핑을 통한 시장과열 양상이 현실화되고 있음을 입증하고 있다.

특히 삼양사의 경우에는 신규진출에 따른 시장확보의 어려움을 저가공세로 돌파한다는 전략을 가시화하고 있어 수출선이 여의치않은 상태에서의 내수시장 확보경쟁이 과열될 수 밖에 없는 주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94년 PP스펀본드 수요는 9000여톤으로 이 가운데 내수가 6000톤, 수출이 3000톤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93년 내수 5600톤에 비해 10%이하의 낮은 수요증가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저조한 수요증가에도 불구하고 공급능력은 코오롱 2400톤, 삼양사 3500톤, 유한킴벌리 6000톤, 제일합섬 7000톤 등 모두 1만8900톤으로 수요 9000톤에 비해 무려 100%이상 공급과잉인 것으로 집계됐다.

더욱이 당초 9월로 예정된 한일합섬의 3000 톤규모의 신규진출이 이뤄질 경우에는 2만1900여톤으로 늘어나 1만2000톤이상 과잉상태에 놓이게 된다.

또 내수시장만을 놓고 볼때는 수요의 3배이상 과잉될 것이 확실시 돼 이에따른 기업간 마찰이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이와함께 3000여톤규모의 수출시장은 93년9월 증설을 완료한 제일합섬이 90%이상을 장악하고 있어 기타 신·증설물량의 내수시장 유입에 따른 각 기업의 시장다툼이 치열해지는 등 재고누적을 통한 경영악화가 하반기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한편, 9월 신규진출이 예상됐던 한일합섬은 PP스펀본드 시장의 과열양상이 심각해지자 당초 계획을 변경, 94년말 폴리에스터쪽으로 참여한다는 내부방침을 정한것으로 알려졌다.

<화학저널 1994/9/5>